

2016 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 제주해녀와 함께 흘러가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진로학술동아리 테왁이 동동

**BY. 테왁이 동동**

홍지희 강경지 김은희 김온유 이유빈 고준혁 강민재  
양현정 양연재 심유림 김민지 금나현 김금별 허정인

## [목차]

### I. 동아리 소개 및 탐구목표

### II. 동아리 홍보활동

1. 교내 미르 북 카페 홍보활동
2. SNS 및 블로그 활동

### III. 동아리 답사활동

1. 해녀박물관 관람
2. 해녀 춤 공연
3. 물질체험

### IV. 결론

## I. 동아리 소개 및 탐구목표

해녀문화는 제주의 문화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제주문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주도민들은 해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녀를 단순한 제주 고유문화, 물질하는 여성으로만 알고 있다. 물론 이 피상적인 개념과 인식이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진로학술 동아리 “테왁이 둥둥”은 해녀문화를 탐구하고 홍보하며 제주 해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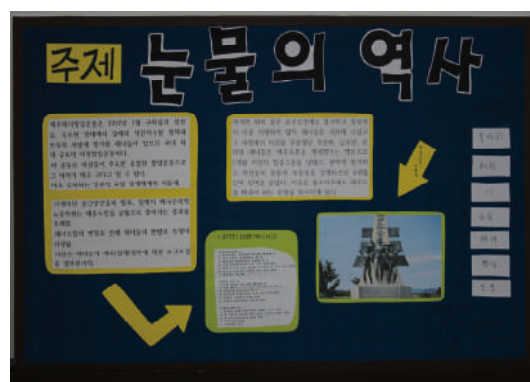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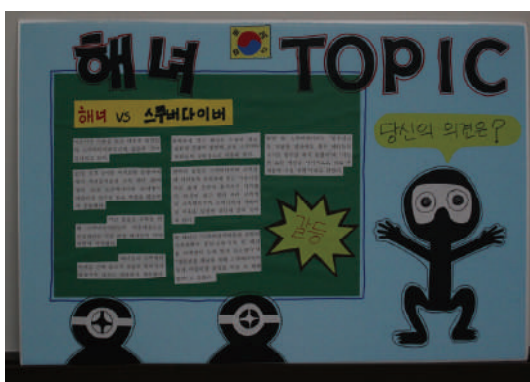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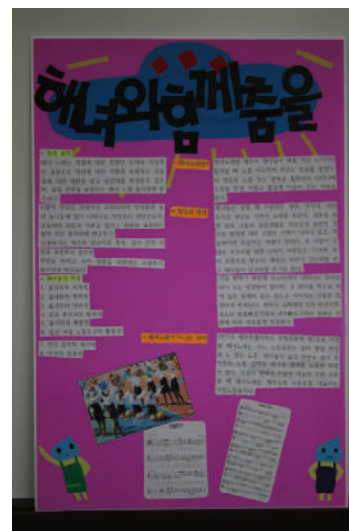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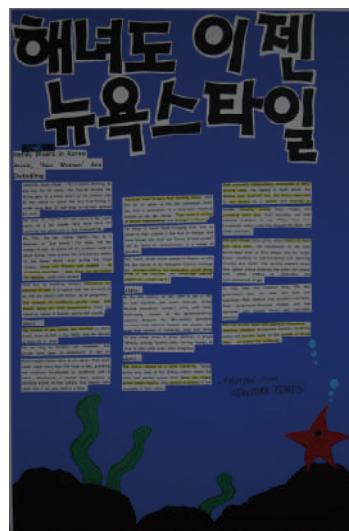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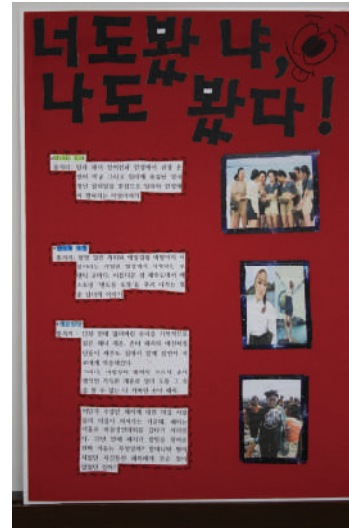
우리는 다른 도민처럼 “해녀”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고, 탐구하려는 시도조차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독도교육기간을 통해 독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본 후에 이러한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라는 주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한국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증거나 독도의 특징 자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모순 속에 대중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녀를 대하고 있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해녀문화를 그저 우리문화, 지켜야 할 유산으로 받아들일 뿐 그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해녀의 가치를 배워갈 뿐만 아니라 이 배움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해녀의 생애와 역사 전반에 걸친 여성학적 의의, 민속학적 가치 등을 알리고자 한다.

## II. 동아리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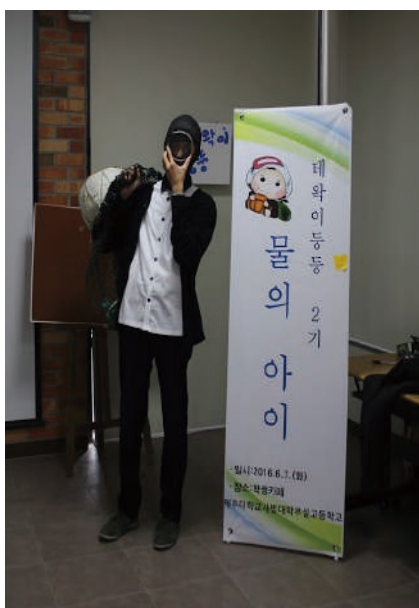
### 1. 교내 미르 북 카페 홍보활동

#### 1) 팸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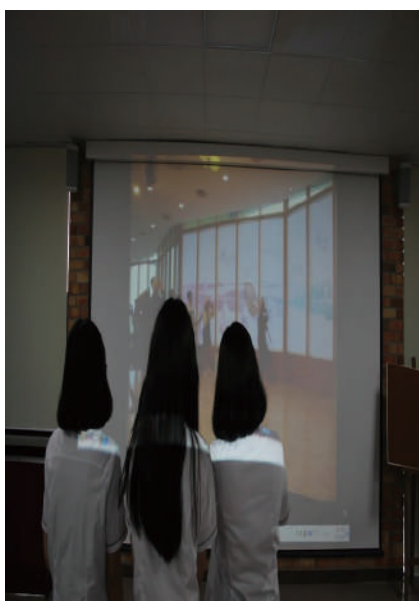
해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넬을 만들어 홍보를 하였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활동들은 해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판넬을 만들려고 했을 땐 막막했지만 다 만들고 난 후, 이 판넬을 본 친구들이 잘했다고, 유익했다고 말해주니 뿌듯했다. 테왁이 똥똥 동아리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2) 해녀 도구 체험



두 번째 체험은 물질 도구 체험이었다. 물질 도구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해녀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체험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녀복을 처음 본 학생도 있었고, 테왁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된 학생도 있었다. 테왁을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보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더 알게 되어 뿌듯하였다.

## 3) 동영상 시청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옛 문헌, 각종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주 해녀의 역사, 출가 해녀, 해녀의 현황, 해녀의 공동체 의식, 해녀 노래, 해녀의 삶과 일터, 해녀 물질 도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 '해녀, 제주를 지켜온 정신'을 보여 주었고, 바닷가에서 후리질로 멸치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인 '멸치 후리는 소리'도 틀어 주었다.

#### 4) 해녀 퀴즈



팜플렛을 보면서 알게 된 해녀에 대한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되새기도록 했다. 퀴즈에는 해녀들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역사, 해녀의 물질 등 해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퀴즈를 맞추면 간식을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니, 학생들과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퀴즈 풀기에 동참하였다.

#### 5) 방명록



우리는 해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응원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는 방명록 부스를 운영하였다. 앞에 있는 여러 활동에 참여한 후 가장 마지막에 오는 부스였다. 새롭게 알게 된 해녀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쓰며, 다시 한 번 해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학생들이 정성껏 써준 포스트잇은 옆 공간에 가지런히 전시했다.

#### 6) 소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해녀의 상징인 테왁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해녀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고맙기도 했다.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해녀에 대해 더 탐구해서 열심히 홍보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SNS 홍보활동

교내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해녀관련 뉴스를 게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기삿거리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카테고리 를 만들어 수시로 동아리 답사기록을 공지하고 답사사진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 비해 기사 스크랩의 분량이 적어 아쉬웠고 체계적으로 교외 홍보활동 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던 활동이었다.



### ▲ 페이스북 홍보활동(해녀 관련 기사 스크랩)



### ▲ 블로그 홍보활동(동아리 활동 게시)

### Ⅲ. 동아리 답사활동

#### 1. 해녀박물관 관람

##### 1) 제주문화

해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앞서 우리는 제1 전시실의 가옥과 생활상을 보며 제주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의 가옥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돌담과 띠 줄로 동여맨 지붕과 나무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가옥의 내부모습과 세시 풍속을 통해서도 제주의 지역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아궁이로 불을 때워 난방을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굴목'이라는 별도의 난방장치를 두고 가축의 분을 땀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주에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도자기 원료의 흙이 아닌 화산토를 사용했다. 그래서 물항 자체에 구멍이 많아 술이나 막걸리를 담기는 어려웠지만 물을 저장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제주에는 어촌마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세시 풍속이 존재한다.

1월 음력 정월 초하루 혹은 보름날에 '돈짓당'이나 '개당'에서 제를 지내는 '뱃고사'가 있고 2월에, 안전조업과 풍어를 위해 용왕께 기도드리는 '요왕지'와 바다에 빠져 죽은 조상을 위로하는 '조상지'와 자신의 몫인 '몸지'를 바다에 던지는 '지드림'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금했던 미역 채취를 시작하여 자기능력만큼 채취하는 '미역해경' 등이 있다. 이러한 세시 풍속





만 봐도 바다와 관련된 제나 행사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시 풍속뿐 아니라 제주는 무속신앙도 다양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 자주 있었는데, 이때마다 '해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물을 준비하여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빌었다.

## 2) 제주해녀의 삶

제2전시실에서는 해녀의 공동체 문화와 해녀들의 작업도구, '소중이'와 고무 옷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배웠다. 해녀문화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턱'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 갈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물질을 하다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해산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물질작업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조를 다지는 등, 해녀의 공동체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의 역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바로 '물소중이'이다. 물소중이는 물질을 할 때 입는 해녀의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해녀를 대표했던 의복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고무 잠수복이 들어오며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해녀의 잠수복은 긴긴 역사를 해녀와 함께 해오며 지금까지 남아있다. 즉, '물소중이'나 잠수복은 해녀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 3) 제주해녀와 공동체

이 부분은 내가 답사를 다녀오고 느꼈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었다. 해녀 작업은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물질작업 역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기와 시간에 정해놓은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동작업 뿐만 아니라 해녀들은 자신들이 채취한 것들을 공동 분배 한다. 해녀가 상군에서 점차 나이가 들며 중군, 하군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할망바당'이라는 고령해녀들을 위한 얇은 바다를 따로 두어 그들을 위한 일터를 보장해 주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 가치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주해녀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은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었다. 해녀들은 예부터 자신들이 얻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내부의 일이나 학교 건축과 같은 사회헌식적 일들에 이바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실제, 1950년 화재로 전 교실이 소실된 성산을 온평리 해녀들은 마을의 한쪽 바다를 '학교바당'으로 삼아 미역을 채취한 수입금 전부를



학교를 재건하는데 헌납하였다. 이런 사례를 보아도, 해녀들은 개인의 이익, 혹은 집단에 이익에만 치우쳐있지 않았으며, 공동체 정신을 몸소 실천한 배려와 공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여성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해녀춤 공연 관람

### 1) 활동 개요

해녀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해온 것이 바로 해녀 춤과 해녀 노래이다. 5월 5일 (목), 우리는 해녀 박물관에서 매주 목요일 15:00~16:00에 열리는 해녀 민속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해녀 문화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 “이여이여 이여도 사나”의 공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순번	공연	비고
1	검질매는 소리	
2	해녀노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3	해녀춤	
4	허벅장단 (느영나영, 오돌또기)	
5	떨치 후리는 노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 2) 해녀 춤과 해녀 노래

해녀 노동은 기계 장치 없이 물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업한다는 특수성과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제주 여성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그 자체에서 발생한 해녀 춤은 생활상의 구체적 필요에 의해 향유되었고, 전승 과정에서 제주해녀들의 삶의 양식을 모아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구실을 했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해녀 춤은 또한 종교적인 제의나 숭배, 자기방어의 수단과 감정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혼과 정서, 의식 및 문화 등이 숨김없이 담겨져 있는 민속춤이라 할 수 있다.

해녀 춤은 해녀들이 목숨을 건 물질 작업과 삶의 애환이 희망과 풍요로움으로 형상화되어, 개인적인 차원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반복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해녀 춤은 일상 어업 노동 도구인 테왁의 활용과 특수한 민속 의상을 착용한 점에서 볼 때 제주인의 지혜가 반영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녀 노래란 제주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이 민요와 노를 젓는 동작은 밀착되어 나타나며, 노동을 한결 가볍고 즐겁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녀들은 일할 때 사용하는 테왁, 망사리, 빗창 등으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을 보면 일의 고됨과 일상생활을 정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생업에 대한 강렬한 기백이 나타나 있고, 역동적이며 직설적인 색채가 강하다.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는 여느 노동요와는 달리 물질 작업과 노 젓는 노동, 해녀들의 삶과 한반도 출가 등 이른바 노동 실태와 해녀의 생애를 노래한 사설이 많다. 사설의 제재나 수집된 자료의 각편 수로 볼 때 해녀노래는 제주도의 노동요를 대표하는 어업노동요이다.

현재 해녀 춤과 해녀 노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제주합창단의 기획연주회 혹은 정기연주회 등에서 창조적으로 발전·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활동 소감

코앞에서 해녀 예술을 감상한 것은 동아리원 대부분이 처음이었다.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해녀 노래 전수자가 들려주는 제주해녀 노래는 어딘가 구슬픈 면이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멋이 났다. 해녀 춤과 해녀 노래에는 오랜 시간 전해져 온 제주해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번 활동은 그러한 해녀 문화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그들이 지닌 인생의 애환과 흥취, 삶의 현장을 조금이

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자체로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가치를 엿볼 수 있어 진심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음을 느꼈다.



### 3. 물질체험

해녀에 대해 잘 모르던 우리는 해녀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해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거나 설명으로 듣기만 했다. 구체적으로 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작업 도중 겪게 되는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해보지 않았기에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해녀체험 활동을 통해 글로만 해녀를 알아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껴보기로 하였다.

이번 해녀 물질 체험을 해봄으로써, 해녀의 바다 위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보고 물질 작업의 고충을 느껴보고자 했다.

#### - 물질체험

테왁이 둥둥은 물질 체험을 위해 하도리 어촌 체험 마을을 방문하였다. 하도리 어촌 체험 안내센터를 방문하여 학생들은 옷을 받아 샤워장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 입고 난 뒤 준비운동 후 천천히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입어보는 고무 잠수복에 조은 어색했다.

물에 들어가자 해녀 두 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테왁을 잡는 법부터 하나 하나 알려주셨다. 테왁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물 속이 편안해졌을 무렵, 해녀 분께서 바다 속을 보라고 하였다. 바다 속을 보니, 해녀박물관에서 시청하였던

다큐멘터리와 매우 유사한 바다 속을 볼 수 있었다. 바다 속을 보고 나니, 배에 힘을 세게 주고 바닷물 속에 있는 무언가라도 잡아 보라고 하셨다. 인어처럼 바다 속에 들어가는 해녀의 모습을 보며 모든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두 힘을 주어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실패를 하였지만 해녀 분께서는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 우리의 수영하는 형태가 아닌, 발 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물질을 한 학생에게는 꼭 해녀를 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후한 칭찬을 했다. 그리고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겁을 먹고 테왁을 놓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을 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해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과거 어르신이 해녀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동네가 해녀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협동하는 해녀의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해녀라는 직업의 고됨도 알 수 있었다. 여름에 폭푹 찌는 더위에 해녀 옷(고무옷)을 입기란 힘들다. 바다에 들어가서는 고무 옷을 입었지만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차가워 더운 느낌은 적었지만 체력적 소모가 컸다.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숨을 참은 상태에서 바닥까지 손이 도달해야하기 때문에 배와 허리에 많은 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숨을 참는 데에도 힘들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코로 바닷물을 마셔 테왁에 매달려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해녀 분께서 바닷물을 코로 마신 학생들에게 해준 말씀이 자신이 어렸을 때, 코로 바닷물 마시고, 입으로도 마시고, 숨이 턱 막힐 뻔도 한 상황이 여러 번 있다고 하셨다. 해녀는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자신이 해녀생활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배우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하셨다. 이것을 통해 해녀의 강인함 또한 엿볼 수 있었다.





#### - 물질체험 외 체험활동

장갑과 칼을 받고 체험어장에  
서 해산물을 채취했다. 평소, 자  
주 접할 수 없는 활동이어서 어  
색함이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게, 배말, 거북손 등과 같  
은 해산물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더 커져갔다. 평소 해볼 수 없었  
던 경험에 보람찬 시간이었고 원  
론적으로만 배우던 해녀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 활동 소감

테왁이 똥똥, 모든 학생은 물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심지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옆에서 응원해주는 해녀의 존재가 마지막에는 거의 물질체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어처럼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테왁이 똥똥이 진행했던 모든 탐사활동들은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해녀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 하지만 이번기회는 글로만 해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적으로 해녀의 곁에서 잠시 해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로만 해녀가 고된 직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녀의 물질을 잠시나마 체험해봄으로써 해녀의 고됨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녀와 가깝지만, 멀었던 테왁이 똥똥에게 해녀와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 IV. 결론

우리에게 있어 이번 동아리 활동은 꽤나 특별했다. 단순한 느낀 점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우리에게 있어 해녀의 가치는 그저 '물질작업' 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없는 것이니, 타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모습이니, 해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활동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해녀문화 탐구 동아리 '테왁이 둥둥'은 해녀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여러 활동을 했다. 교내 부스활동을 통해 평소 해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방명록을 통해 그 소감을 드러냈다. 교내뿐만 아니라 SNS 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동아리 소식을 전하고 방문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해녀문화를 조금씩 알려갔다. 홍보뿐만 아니라, 동아리 스스로 해녀문화에 스며들고자 했다. 해녀박물관에서 해녀의 역사와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해녀 춤 공연을 보면서 그 문화적 가치에 젖어들었으며 해녀와 함께 물질을 해보면서 해녀의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해녀들의 삶과 그 애환을 완전히 이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한 번 더 제주의 모습을 둘러보았고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궂적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많은 활동을 해보지 못했고 교외 홍보활동도 활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전과는 다른 해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뜻 깊은 경험들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동아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무형유산 인터뷰 영상제작에 참여하고, "고등학생이 기록하는 해녀이야기"등 제주에서 개최되는 교외 해녀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2016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ulture of Haenyeo  
(Women Divers)**

**Flowing with Jeju haenyeo**



**Jeju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club  
'Tewak is floating'**

Hong Ji Hee, Kang Gyeong Ji, Kim Eun Hee, Kim On Yu, Lee Yu  
Bin, Ko Jun Hyeok, Kang Min Jae,  
Yang Hyeon Jeong, Yang Yeon Jae, Sim Yu Rim, Kim Min Ji, Geum  
Na Hyeon, Kim Geum Byeol, Heo Jeong In

## **[Contents]**

### **I. Introduction of club 'Tewak is floating' and goal**

### **II. Promotion Activities**

- a. Activities at Mir Book Cafe in school
- b. SNS and Blog Activities

### **III. Field Study**

- a. Visiting Haenyeo Museum
- b. Haenyeo Dance Performances
- c. Experiencing Muljil

### **IV. Conclusion**

## **I. Introduction of our club 'Tewak is floating' and our goal**

Although culture of haenyeo is one of Jeju culture, jeju residents don't know about haenyeo. Most people just consider haenyeo as unique culture of jeju or woman diver. We were no exception, too. So the goal of 'Tewak is floating' is exploring and promoting the culture of haenyeo as well as knowing about jeju haenyeo.

We didn't have deep knowledge about haenyeo like other jeju residents and we didn't try to explore them. However, we make our goal after we saw wrong perception of korean about "Dokdo" during Dokdo education period at school. Most koreans take the argument that Dokdo belongs to korea and Dokdo is historically proven clearly Korean territory for granted. But actually many koreans don't know about historical evidences about Dokdo as well as its own feature. In this contradiction, the public is being swept along. However, this situation is not differ from the situation that we do with haenyeo now.

We just accept the culture of haenyeo as our cultural heritage to be protected but don't feel the intrinsic value of the culture and sincere affection. That's so shameful. Thus, we are wish to reflect on our attitude, learn about the intrinsic value of haenyeo and share it with other people.

## II.Promotion Activities

### a. Activities at Mir Book Cafe in school

#### 1) Promotional materials

We searched information about haenyeo and make promotional materials. We make them to introduce haenyeo to our friends and teachers but making them also lets us be more aware of haenyeo. We were glad to inform haenyeo to our friends and it was very useful time to all our club members.

#### 2) Experiencing tools of haenyeo

Next is experiencing tools of haenyeo. By seeing and experiencing the tools, students are able to feel haenyeo more vividly. We also took photos to make students remember these experience for long time. There are students who see the clothes of haenyeo and tewak for the first time.

#### 3) Watching a video

We showed a video named *Haenyeo, the Sprit protected Jeju* to help students understand more easily about haenyeo. The video includes history of haenyeo based on ancient documents and various relics, their life and workplace, current situation and their community spirit. Students are also able to hear the song that are singed when people catch anchovies.

#### 4) Quiz about haenyeo

We made students recall the information they watched at first by promotional materials. We gave students small goods when they say correct answers to make more students participate in quiz.

#### 5) Writing messages to haenyeo

This activity is to write short letters to haenyeo on post-it notes. Students wrote what they want to say to haenyeo or some words of



support. We display post-it notes which students wrote.

#### 6) Impression

More students do not know about haenyeo than we expected. So, we hope many students have interest in haenyeo with this activity.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to all students. Also, we will harder learning and promoting about haenyeo forward.

#### **b. SNS and Blog Activities**

We tried to inform haenyeo by not only promoting at school but also making facebook page and posting news about haenyeo. We also post our club's activities by making a category for club. However, we felt something lacking because extracurricular promoting activities are not applied systematically. Therefore we will do more activated promoting activities.

### III. Field study

#### a. visiting Haenyeo museum

##### 1) Culture of jeju

Before starting to know Haenyeo, we he would like to understand Jeju's living conditions by hearing historical explanation and seeing the form of traditional house in the first gallery.

Jeju's traditional house was composed of the material that could be found easily around Jeju. A stone wall and string house are the typical examples of them. Watching the appearance and internal structure, we can find locality from Jeju.

Unlike others regions, Jeju had an unique heating apparatus called "goolmuk" and used domestic animals' excrement as a firewood. Also, jeju made wares of trass because jeju is a volcanic island. Although it was difficult for jeju wares to store liquor or raw rice wine, the wares was effective for keeping them.

As there are so many fishing villages in jeju, it has various the new years customs, manners and shamanistic celebration associated with fishing industry.

In January, the first day of the month or fifteenth day, there is "bat go-sa", like a memorial service, acted in "donzit dang" or "gaedang". In February, people did "yo wang zi", praying for their safe and a good haul, "jo sang zi" comforting their forefathers who passed away in the sea,, and "zi deurim" throwing their portion "moum zi" to the sea. Specially, Haenyeo used to work in underwater, so when their working days were coming, people prepared offerings and wished their safety and richness in "haesandang".

## 2) the lives of jeju haenyeo

In second gallery, we learned about their culture of community, work tools, and historical changes in haenyeo's working uniform such a "so jung-e". The core of their culture is "bulteok". Bulteok is the place where they prepared to go through the sea and took a rest with other haenyeo. They used to share sea food and knowledge about the work. In other words, it's the place that reveals their communal features. And we saw their work suits. At first, the suits was just made of texture. Entering wet suit, haenyeo's work efficiency has been highly improved. So, we thought their work place and suits means haenyeo's culture and the lives over the history.

## 3) Jeju haenyeo and their community

The part is the most impressive thing ever we learned and felt in this experience. Haenyeo's work has communal characteristics strongly. Their work could not be operated by one person, and progressed by the rule and agreement. And the community prepared special ground called "halmang-sea" and secured old age haenyeo's rewards.

Thus, we noticed the value is truly important thing that we can take on their life and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good manners.

Above all, the spirit haenyeo has was not restricted in their community. From old times, they used to raise fund originated their profit and contributed to educational or social things like establishing a school. It is a sure thing they are women who practiced a sense of community and symbolized consideration and coexistence.

### **b. Experience of working as Haenyeo**

we could realize many of things about haenyeo by searching information and visiting related place or museum. However, it was just restricted in one-sided explanation, listening to their stories or watching

some videos. We didn't know exactly how they starts to work and feel about the job themselves. So we decided to feel their work not to study in writing.

We visited the haenyeo village and took the diver suits. It's little bit hard and weird to take on, but simultaneously interesting experience. Though we were struggling to go down to the undersea, it was not that easy. Some students failed to try similar to haenyeo's movement. Particularly, stoping breathing was the most hard thing to do.

In this experience, we realized haenyeo's work is much exhausting than we expected and felt their burden of the work. we thought all of the things we've experienced means haenyeo's toughness and passion for their family.

## IV. Conclusion

For Tewak, the experience is considerably special. Before making the group, we had noticed the culture of haenyeo's value was restricted in their unusual working style. However, the past time in Tewak let us know haenyeo's essential value that we didn't comprehend.

The club 'Tewak is floating' do lots of activities to approach haenyeo. We offered unique opportunities to students who don't know well about haenyeo by school promoting activities. We also tried to inform others about haenyeo. We cannot understand perfectly about the life and harshness of haenyeo. However, it was invaluable experience that made us interested in local community.

We will do our best as students to learn and let others know about haenyeo. We are preparing to participate in making a video which UNESCO holds and various things.